

##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 연구: 호메로스적 독법\*

이 준 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 국문초록

소포클레스는 고대로부터 *Tragicus Homerus*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이 드라마는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호메로스의 흔적이 많이 남겨진 작품이다. 이 논문은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딧세이아』에 나타나는 여러 장면을 자세히 비교하면서 아이아스가 자신의 적들인 헥토르, 오딧세우스와 동화되는 모습들을 살핀다. 본문에서는 아이아스가 이들과 공유하는 특징들을 열거하고, 이것이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 연구는 소포클레스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이러한 특성을 아이아스에게 부여하는지 그 이유를 살피면서, 이 작품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들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이 해석은 오랜 수수께끼였던 ‘기만연설’의 해석에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많은 학자들은 구시대의 완고한 영웅인 아이아스가 새 시대의 유연한 영웅인 오딧세우스로 대체된다는 이항대립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작품의 해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서로의 모습이 서로에게로 투영되는 소포클레스 특유의 가변성과 변화의 원리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아스가 헥토르의 모습을 취하게 하여 장례문제의 긴장을 잃지 않음으로써 주인공의 죽음을 통해 양분되는 이 드라마의 구조에도 일관성이 부여된다.

■ 주제어 ■ 소포클레스, 호메로스, 아이아스, 오딧세우스, 헥토르

\* 이 연구는 2022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Helfenberg14@knu.ac.kr

##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이아스』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독법 제안을 목표로 한다. 소포클레스는 고대로부터 Tragicus Homerus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이 드라마는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호메로스의 흔적이 많이 남겨진 작품이다.<sup>1)</sup>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해석들이 있었으나 대체로 아이아스와 헥토르의 유사성을 몇몇 대목에서 찾아내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sup>2)</sup> 연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이아스에게는 헥토르, 그리고 오뒷세우스라는 적이 있었고, 소포클레스는 이 드라마 곳곳에서 아이아스를 이들과 동화시키고 있다. 본문에서는 아이아스가 이들과 공유하는 특징들을 열거하고, 더 나아가 소포클레스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이러한 특성을 아이아스에게 부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Stanford, 1963, n. 16, 28.

2) 아이아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호메로스와 소포클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Kirkwood, 1965, pp. 51~70; O'Higgins, 1989, pp. 49~51; Garner, 1990, pp. 49~64; Evans, 1991, pp. 69~85; Burian, 2012, pp. 70~71 등이 있으며, 호메로스와 소포클레스의 영웅성 비교 연구로는 Taplin, 1979, pp. 123~124; Sorum, 1986, pp. 361~377; Zanker, 1992, pp. 20~25 등이 있다. 테크멧사와 안드로마케의 유사성은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해 온 테마인데, 대표적으로 March, 1991~1993, p. 15; Garvie, 1998, n. 485~524; Segal, 1999, p. 115; Finglass, 2011, n. 485~524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한 가장 집중적인 연구로는 Easterling, 1984, pp. 1~8이 있다. Farmer, 1998, pp. 19~45는 아이아스와 헥토르의 독백을 비교하였으며, 헥토르와 아이아스가 주고 받은 선물의 역할은 Youman, 1986, p. 398이 언급하였다. March, 1991-1993, p. 1~36은 『일리아스』와 이 드라마가 공유하는 장면 및 인물 설정, 그리고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죽음을 논하였다. 한편, 이 드라마와 『일리아스』 1권과의 비교로는 Barker, 2004, pp. 1~20이 있다. 반면, 아이아스와 오뒷세우스의 비교 연구는 다소 적은 편인데, 오뒷세우스와 아이아스가 공유하는 가변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March, 1991-1993, p. 23이 언급하였고, Segal, 1999, pp. 113~114는 아이아스의 '기만 연설'에서 드러나는 오뒷세우스적 성격을 보았다.

## 2 아이아스와 오뒷세우스의 동화

### 1) 영웅의 곁에 선 아테네

작품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오뒷세우스는 아이아스의 가장 큰 적수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대조의 시선이 아닌, 유사성으로 포착되는 지점들이 더 많다. 아이아스가 무대 위에 등장하여 발설하는 첫 대사를 들어보자.

오, 아테네시여, 평안하시길, 평안하시길, 제우스에게서  
나신 자녀여.

그대는 제 곁에 서서 얼마나 잘 도와주셨던가요! (91-92)

아이아스는 아테네 여신을 곁에서 자신을 늘 잘 돕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물론, 그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의 단위에서도 오뒷세우스를 연상하게 한다.

오뒷세우스는 아테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제 말씀 들어주소서, 아이기스를 지니신 제우스께 태어  
나신 분이여!

임은 제가 처한 어떠한 곤경에서도 매번 제 곁에 서주셨고  
[...]” (『일리아스』 10.277-279)

아테네 여신이 밀착하여 충애를 베푸는 대상이 있다면, 호메로스에서는 단연 오뒷세우스가 꼽힐 것이다. 아테네 여신이 그의 귀향과 복수 전체를 설계하고 돕는 『오뒷세이아』는 물론이

며, 『일리아스』에서도 이 둘의 밀착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오뒷세우스가 아테네의 충애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료 전사들도 언급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일리아스』 23.782-783, 『오뒷세이아』 3.218-222, 379.) 오뒷세우스의 곁을 늘 본인이 지키고 있었다는 아테네의 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오뒷세이아』 13.300-301). 첫 등장에서부터, 이미 아이아스에게 오뒷세우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2) 오뒷세우스를 매질하다

이어지는 아테네와 아이아스의 대화에서, 그는 오뒷세우스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려죽일 것이라고 한다.

아이아스: 오, 여주인이시여, 그는 제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수인囚人으로서 안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은 그가 죽기를 원치 않으니깐요.

아테네: 그 전에 뭔가 행하기 위해서인가? 또는 뭔가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이아스: 먼저 내 지붕 밑 기둥에 묶여...

아테네: 대체 어떤 재난을 그 불행한 자에게 내리려는가?

아이아스: 매를 맞아 등에 피칠갑을 한 채 죽게 하렵니다.

(105-110)

광기에 사로잡힌 아이아스는 가축 한 마리를 오뒷세우스로 착각하고 때려죽일 심산이다. 이 기괴한 장면과 병치될 수 있는 유일한 장면이 『오뒷세이아』에서 발견된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 오뒷세우스에게 심한 매질을 가한 자가 오뒷세우스

본인이라는 점이다. 헬레네의 회상을 들어보자.

그분은 당치도 앓은 매질에 스스로를 내어주더니 두 어깨에는 마치 하인이라도 된 듯 형편없는 형겔 쪼가리를 걸치곤 적의를 품은 사내들의, 널찍한 길이 난 도시로 잠입했어요. (『오뒷세이아』 4.244-246)

또, 이 대화 중에 아이아스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로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은 구혼자들을 살육한 후의 오뒷세우스의 모습 그 자체이다. 차이가 있다면, 소를 죽인 것이 오뒷세우스에게는 직유로 붙고, 아이아스에게는 착란 속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녀는 살육된 시체들 사이에서, 마치 별판에서 먹인 소를 잡아먹고 돌아가는 한 마리 사자처럼 온통 피칠갑을 한 오뒷세우스를 보았다.

사자는 가슴이며 양쪽 볼 할 것 없이 온통 피범벅이 되어,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끔찍할 지경이다. 꼭 것처럼, 오뒷세우스는 두 손과, 그 아래 두 발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오뒷세이아』 22.401-406)

한편, 『일리아스』 2권을 보면, 오뒷세우스가 테르시테스를 지휘봉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일리아스』에서 매질이 묘사된 유일한 이 장면을 어떻게 연결시키든 지금 아이아스의 모습은 오뒷세우스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 3) 야간 기습

아이아스와 오뒷세우스는 야간 기습이라는 점에서 연결되기도 한다. 아테네는 오뒷세우스에게 아이아스의 광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그가 밤중에 간계를 품고 습격하려 했노라 말한다.<sup>3)</sup>

오뒷세우스: 대체 이 무슨 만용이며 어리석은 충동이란 말인가?

아테네: 밤중에 몰래 혼자서 그대들을 습격하자는 것이었지. (46-47)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야간에는 전투를 중지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묘사된다(『일리아스』 7.282-18.267). 그러나 마치 위 인용문의 아이아스처럼 야간 기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인 예가 『일리아스』 10권이고 그 주역은 디오메데스와 오뒷세우스이다. 『오뒷세이아』에서는, 물론 오뒷세우스가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뒷세우스의 야간 기습에 관한 일화가 두 번이나 나온다(『오뒷세이아』 13.256-270, 14.462-506). 호메로스에서 오뒷세우스는 야간 기습과 가장 많이 연결되는 인물이다.

---

3) 아이아스의 야간 기습이 전사의 덕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다. Scodel, 1984, p. 17; Segal, 1999, p. 124; Bowie, 1983, p. 114; Bradshaw, 1991, p. 117; Winnington-Ingram, 1980, p. 17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von Mollendorf, 2001, pp. 263~265는 아이아스의 야간기습을 『일리아스』 10권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다.

#### 4) 영웅의 추락

한편, 이 작품에서 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에 버금가는 위대한 존재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는 『오뒷세이아』의 오뒷세우스만이 그와 나누는 경험이다. 그는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차지하고, 트로이아 함락의 주역이 되었으나 폴뤼페모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주저앉고 만다.

그때 저는 그에게 상냥하게 말하였습니다.

‘퀴클롭스, 내 유명한 이름을 묻다니, 내 그대에게 말해드리리다. 그러면 그대가 약속한 바대로 내게 접대 선물을 주시오.

‘있지도 않은 자’가 내 이름이라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다른 모든 전우들도 나를 있지도 않은 자라고 부르곤 하오.’ (『오뒷세이아』 9.363-367)

#### 5) 선원들과 그들의 대장

이 드라마의 코로스를 구성하는 아이아스의 부하들은 살라미스의 선원들로 소개된다. 영웅과 그 부하들을 대장과 선원들의 관계로 설정한 것은 『오뒷세이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승선이나 항해 장면이 없는 이 드라마에서 이들이 굳이 선원으로 묘사된 것은 『오뒷세이아』와의 병렬을 의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 6) 아가멤논에 대한 복종

아가멤논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 둘의 독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기만연설’(646-692)이라 불리는 아이아스의 연설 중, 그는 누구든 아가멤논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667-669).

그래서 앞으로 나는 신들께 복종하는 법을 알 것이며,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을 존송하기를 배울 것이다.  
그들은 지배자들이니 복종을 받아야 한다. 왜 아니겠는가?  
(667-669)

누군가에게 아트레우스의 아들에 대한 존중을 넘어 복종까지 요구하는 장면 역시 호메로스에서 오뒷세우스만이 보여줄 뿐이다. 『일리아스』 2권에서 그는 아가멤논을 비난하는 테르시테스를 질책하고 매질까지 해가면서 아가멤논의 지시를 따를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며 테르시테스는 백성들의 목자 아가멤논을 헐뜯었다.  
그러자 신과 같은 오뒷세우스가 단숨에 그의 곁에 다가서더니 눈을 치켜뜨고 그를 쳐다보며 심한 말로 질책했다.  
“테르시테스, 마구잡이로 떠벌리는 녀석! 네 비록 목청 좋은 웅변가이긴 하나, 삼가라. 너 혼자 왕들과 다투려 들지 마라. [...]  
그러니 너는 말할 때 감히 왕들을 입에 올리지 말고,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지도, 귀향을 엿보지도 말지이다. [...]  
한데 네놈은 지금 여기 앉아 다나오스인들의 영웅들이 그

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건네었다는 이유로 아트  
레우스의 아들, 백성들의 목자인 아가멤논을 혈뜯고 있는  
것이냐, 이 회중에서 야유까지 해가면서?

(『일리아스』 2.243-257)

혹자는 아이아스의 연설 전체가 남들을 속이기 위한 의도로  
발설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기만 연설’이라는 제목이 붙은 까  
닭이다.<sup>4)</sup> 그렇다면 아가멤논에 대한 복종의 요구는 거짓일까?  
그래도 상관없다. 만일 이 연설의 목적이 속이기 위한 것이라  
면, 아이아스는 이미 오뒷세우스 그 자체이다. 『오뒷세이아』  
에서 귀향 후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수많은 거짓 이야기들을  
태연하게 늘어놓던 그의 모습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 7) 부정적인 이름

아이아스는 자기 이름의 뜻을 불행과 연결하며 절규한다.

아이아이, 대체 누가 내 이름이 이렇게 불행의 뜻과 깊게  
맞아떨어질 줄 알았으랴?

이제 나 두 번이나 ‘아이’라고 외치게 되었으니. (430-432)

---

4) 이 드라마의 해석에서 소위 ‘기만 연설’(Trugrede)에 대한 논쟁은 항상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연설이 속임수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 Knox, 1961, pp. 1~37; Sicherl, 1970, pp. 14~15; Winnington-Ingram, 1980, pp. 38~59; Moore, 1977, pp. 48~54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Cellie, 1972, pp. 14~15가 지적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속임수가 아니라 해석한 학자들의 전제는 ‘아이아스는 변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인데, 그가 변할 수 없다면 이 연설에서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그가 변할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 해석들은 Goldhill, 1986, pp. 189~192; Stevens, 1986, pp. 327~336; Garvie, 1998, pp. 184~186 등이 있다.

제정신이 돌아온 아이아스는 자신의 이름에 고통스러운 탄식(‘아이 아이’)이 담긴 것으로 파악하며 자기 이름의 뜻을 불행과 연결하며 절규한다(430-432). 호메로스에서 이름의 의미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부여되는 경우는 오뒷세우스가 유일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우톨뤼코스가 그녀에게 소리 내어 대답하였다.

“내 사위와 딸아, 내가 말하는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려무나. 나는 만물을 먹여 살리는 대지 위에 있는 많은 남녀에게 노여움을 품고 이곳으로 왔으니, 그 뜻을 따라 이름을 오뒷세우스라고 하여라. (『오뒷세이아』 19.405-9)

## 8) 바닷가의 목욕

아이아스는 신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닷가에서 몸을 씻겠노라고 말한다(654-6). 지중해인들이 바닷가에서 몸을 씻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호메로스에서 바닷가 목욕 장면은 모두 오뒷세우스와 연결된다. 『일리아스』 1권에서 오뒷세우스는 헤카톰베를 바치기에 앞서 병사들과 바닷가에서 목욕을 하고, 10권에서 야간기습을 마치고 돌아온 후 디오메데스와 함께 바다에서 목욕한다. 마지막의 오뒷세우스와 디오메데스. 오뒷세이아에서 스케리아 상륙 오뒷세우스. 오뒷세이아에서도 스케리아 섬 바닷가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이 있다. 맨 처음 언급한 일리아스 1권의 사례는,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정결 의식이라는 점에서 아이아스의 바닷가 목욕과 동기마저 같다.

### 3 아이아스와 헥토르의 동화

아이아스에게 오뒷세우스가 현재의 적이라면, 과거의 맞수는 헥토르이다. 시인은 아이아스와 헥토르의 동일화 역시 모든 힘을 다해 그려낸다.<sup>5)</sup>

#### 1) 말을 길들이는 자

아이아스는 테크멧사와 대화하면서 아들 에우뤼사케스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망아지처럼 길들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 아이는 얼른 자기 아버지의 잔혹한 생활 방식에 망아지처럼 길들어야 하고, 본성 또한 닮아야 할 거요. (548-549)

이 장면은 『일리아스』 6권에서 아들 아스튀아낙스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헥토르의 모습과는 분위기가 몹시 다르다. 따라서 많은 비평가들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대조를 보지만,<sup>6)</sup> 본인은 말馬을 길들인다는 표현에 주목하여 이것이 시인이 아이아스에게 입힌 헥토르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일리아스』에서 ‘말을 길들이는 hippodamos’이라는 표현이 헥토르 고유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트로이아인들에게 집합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며(23회. 2.229, 3.126, 130, 250, 342, 4.79, 332, 351, 353, 509,

5) 반대로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비교/대조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von Mollendorf, 2001, pp. 265~272; Brown, 1965, pp. 118~121이 있다.

6) Finglass, 2011, n. 548ff.가 대표적이다.

6.460, 7.361, 8.70, 110, 515, 525, 10.424, 11.567, 12.440, 17.229, 418, 19.236, 316), 그중에서도 특정한 트로이아인을 지칭할 때에는 헥토르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5회. 7.38, 16.717, 22.161, 210, 24.804)<sup>7)</sup>

## 2) 별거벗은 영웅

영웅이 죽고 가족이 남는다. 아이아스는 자신이 불명예스럽게 귀향한다면, 그것은 맨몸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일일 것이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상상한다.

하지만 무슨 낫으로 아버지 텔라몬을 만나 뵈 것인가?  
대체 으뜸의 상도 없이 맨몸으로 나타난 나를 그분이 어떻게  
참고 보실 것인가?  
으뜸가는 상으로 큰 명예의 왕관을 누리셨던 분이?  
견딜 수 없는 일이로다 [...]. (462-466)

그리고 이 맨몸의 이미지는 아킬레우스를 기다리는 헥토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그에게 간청하러 찾아간다 해도, 그가 나를 동정할 리는 없어.  
나를 앞에 두고 무슨 몸가짐을 삼가는 건 고사하고, 내가 무장을 벗고 나면 마치 여자처럼 알몸뚱이가 된 나를 죽이 겠지. (『일리아스』 22.123-125)

---

7) 『일리아스』에서 이 표현이 개인과 연결될 때에는 디오메데스(7회. 5.415, 781, 849, 7.404, 9.50, 710, 23.472)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며, 나머지 용례로는 안테노르(6.298, 14.473), 카스토르(3.237), 트라쉬메데스(14.10), 휘페레노르(17.24)가 있다.

아이아스처럼 맨몸이 되어 달갑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상을 하는 것은 호메로스에서 헥토르가 유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이아스는 맨몸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결한 반면, 헥토르의 아버지는 맨몸이 되어 누운 헥토르의 시신을 찾으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 3) 여인의 기도와 좌절

이 드라마의 아이아스도, 『일리아스』의 헥토르도 여성에게 신들에게 바칠 기도를 당부하나, 그 결과는 부정적이다. 아이아스는 테크멧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여자여, 안으로 들어가서 신들께 빌라 (685)

『일리아스』 6권에서 헥토르는 동생 헬레노스의 조언에 따라 성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헤카베를 만난다. 그리고 지체 높은 부인들과 함께 아테네 여신에게 제물과 함께 기도를 바치라고 어머니에게 당부한다(II. 6.263-285). 그러나 이 두 기도의 결과는 테크멧사에게도, 트로이아 여인들에게도 좌절로 돌아올 뿐이며, 그 결과가 아테네 여신의 결정이라는 점 역시 같다.

그녀가 이렇게 기도하며 말했음에도, 팔라스 아테네는 고개 젓혀 이를 마다했다. (『일리아스』 6.311-2)

#### 4) 사후의 시신 처리

이 드라마의 아이아스와 『일리아스』의 헥토르 모두 죽기 직전에 자신의 시신이 개떼와 새떼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아이아스는 마지막 연설에서 제우스에게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적들 중 누군가에게 먼저 탐지되어 개들의 먹잇감과 새들의 노획물로 던져지지 않도록, 오, 제우스여 이런 것을 당신께 빕니다. (829-831)

『일리아스』에서 상대방에게 사후의 시신 처리에 대해 서약을 제안하는 유일한 인물은 헥토르이다. 7권에서 그는 희랍군의 최강자에게 일대일 대결을 청하며 승자가 패자의 시신을 능욕하지 않고 합당한 장례를 보장하자고 제안한다. 이때 그 상대방은 바로 아이아스이다(17.75-86). 헥토르는 22권에서 아킬레우스와 맞서며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지만 냉혹하게 거절당한다(22.254-272). 그는 목숨을 잃어가며 다시 한번 애원한다.

그에게 채 한 줌 남지 않은 기력을 짜내어 빛나는 투구의 헥토르가 말하였다.

“나, 네 목숨과, 무릎과, 부모님의 이름으로, 네게 애원하마. 제발 아카이아인들의 배들 곁에서 개 떼가 나를 뜯어 먹는 일은 없게 해다오.

그러지 말고, 넉넉한 청동에 황금을 더해 받아다오.

그건 내 아버지와, 공경하올 어머니께서 네게 선물로 줄 것이니.

내 몸은 부디 우리 집으로 되돌려보내 다오. 트로이아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의 아내들이 죽은 이 몸을 불 속에 넣어줄 수  
있도록.”

(『일리아스』 22.337-343)

## 5) 통곡하는 어머니

아이아스와 헥토르의 어머니들은 모두 자식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이미지로 연결된다. 아이아스의 마지막 연설에서 그  
는 불행한 자신의 어머니의 비탄을 상상하며 그녀가 온 도시에  
높은 애곡을 올리리라 상상한다.

진정 그 불쌍한 여인은 이 소식을 들으면 온 도시에 높은 곡  
성을 올리시리라. (850-851)

아이아스의 상상은 헥토르의 죽음을 목격한 헤카베에게는  
현실이 된다.

내 새끼! 애달픈 이 내 몸! 네가 목숨을 잃은 마당에, 이 끔  
찍한 일 겪어가며 내 목숨 더 부지해 봐야 무엇 하겠니? 이  
성 어디에서든, 밤에도 낮에도, 너는 내 자랑이었어. 이 도시  
곳곳에 사는 트로이아의 모든 남녀에게 위안은 바로 너였고,  
그들은 너를 신처럼 받들어 모셨지.

너는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영광이  
었으니까.

그러던 너를, 이제 기어코 죽음이, 운명이 따라잡고 말았구나!

(『일리아스』 22.431-435)

## 6) 투석형

아이아스의 부하들은 아이아스가 저지른 일로 인해 아이아스와 함께 투석형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두 지배자가 우리를 향해  
그러한 위협을 휘두르는도다.  
두렵구나, 돌로 치는 격한 죽음을  
저 사람과 함께 맞이하여, 같이 고통 받을 것이. (251-255)

호메로스에서 투석형을 언급하는 유일한 인물은 헥토르이다. 그는 파리스를 질책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를 본 헥토르는 치욕적인 말들로 질책했다.

[...]

트로이아인들은 겁이 많아도 너무 많지. 그렇지만 앓았어도 너는 네가 저지른 그 허다한 몫쓸 짓으로 진작 돌로 된 옷을 입었을 것이야!”

(『일리아스』 3.38-57)

한편, 헥토르를 두 번이나 돌로 쓰러뜨려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영웅이 지금은 돌에 맞아 죽을 위협에 처해있다는 점도 『일리아스』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아이러니이다.

## 4 세 영웅의 동화: 아이아스 - 헥토르 - 오뒷세우스

이 작품에서 캐릭터 간의 동일화는 일대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아이아스, 오뒷세우스, 그리고 헥토르가 모두 얽히는 동일화를 확인할 차례이다.

## 1) 사냥꾼과 사냥감

Segal은 이 드라마의 처음 20줄의 대화에서 사냥/수색에 대한 은유가 7번 넘게 등장한다는 점을 보이며 아이아스가 사냥꾼인 동시에 사냥감이라고 해석한 바있다.<sup>8)</sup> 이 중첩된 은유에서 솟아나는 이미지는 사냥꾼인 동시에 사냥감이 되어버린 아이아스의 비극적인 면모이다. 『일리아스』에서 이러한 역설적인 정체성은 헥토르에게만 보일 뿐이다.<sup>9)</sup> 희랍군을 몰아세우는 헥토르는 맹수를 추격하는 사냥개에 비유되고(337-340. cf. 17.725-731) 사냥개를 모는 사냥꾼에 비유되기도 한다(11.291-293). 사르페돈은 헥토르에게 사냥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한 바있고 (5.488), 마침내 사냥꾼들과 개들 앞에서 투지를 잃지 않는 사냥감에 비유되기도 한다(12.40-50).

『오뒷세이아』에서는 오뒷세우스가 이들과 병렬을 이루는 유일한 인물이다. 실제로 그는 여러 번 사냥에 나서는 것으로 묘사된다. 퀴클롭스들의 섬으로 가기 전, 그는 동료들과 함께 염소섬에서 109마리의 염소를 사냥하여 잔치를 벌였고(9.155-160), 키르케의 섬에서는 단독으로 거대한 사슴을 사냥한 적이 있다(10.156-180), 헬리오스의 섬에서는 식량이 소진되자 사냥으로

---

8) Segal, 1999, p. 130.

9) 단편적으로 사냥의 모티브와 연결되는 인물들도 있다. 사냥꾼으로 소개되는 인물로는 스카만드리오스(5.49)가 있고, 오뒷세우스는 디오메데스와 함께 두 마리 사냥개에 비유되며(10.360-362), 안틸로코스 역시 사냥개로 비유된다(15.579-581). 아게노르는 사냥꾼에 맞서는 표범으로 비유된다(21.571-578).

연명하였고(12.330), 이타카를 떠나오기 전에는 훌륭한 사냥개 아르코스의 주인이었다(17.291-327). 사냥꾼으로서의 오뒷세우스에 관한 일화 중에서는 어린 시절의 멧돼지 사냥이 (19.413-466)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오뒷세우스 본인에게도 그 사냥에서 새겨진 상처가 자기정체의 결정적인 지표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의 행적이 아니라 비유의 장면으로 옮겨가면, 오뒷세우스 역시 아이아스, 헥토르와 마찬가지로 사냥꾼인 동시에 사냥감의 역설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나우시카아를 대면하러 나가는 그의 모습은 사냥에 나선 사자에 비유되며(6.130-134), 구혼자들을 처단한 그의 모습에는 소를 사냥한 사자의 직유가 붙는다(22.401-406). 반면, 스케리아에 상륙해서는 들짐승에게 사냥감이 될까 걱정하는 모습 (5.473)을 드러내며, 텔레마코스과 상봉하는 장면에서는 새끼들을 사냥당한 새에게 비유된다(16.216-219). 이 밖에도, 죽여서는 안 될 짐승들을 본인이 의도치 않게 사냥했다가 신이 보낸 재앙을 겪게 된 파괴적인 경험 역시 오뒷세우스와 아이아스만이 공유하는 특징이다. 차이가 있다면, 아이아스는 광기에 휩싸였고, 오뒷세우스는 부하들의 잘못으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정도이다. 이 일은 『오뒷세이아』 서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몸부림쳤음에도 동료들을 구해내지는 못했으니 그들이 저 스스로 택한 잘못으로 파멸해버린 탓이지요. 그 철부지들은 헬리오스 휘페리온의 소들을 잡아먹었고 신께서는 그들에게 귀향의 날을 앗아가셨습니다. (『오뒷세이아』 1.6-9)

## 2) 불의 이미지

합창단은 테크멧사를 향해 말하며 아이아스를 타오르는 불에 비유한다.

그대는 불같은(aithonos) 저 인물에 대해 견딜 수 없고, 피할 길도 없는 소식을 전하시느군요.(221-224)

원어 aithonos는 ‘불타오르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aithon의 단수 속격인데, 『오뒷세이아』에서 페넬로페를 독대하게 된 오뒷세우스는 자신의 가명으로 바로 이 이름을 사용한다.

내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이토온(aithon)입니다.

나는 나중에 태어났고, 이도메네우스는 형인데다가 더 나은 전사입니다.

(『오뒷세이아』 19.183-4)

이처럼 오뒷세우스와 아이아스가 단어 차원에서 일치를 보인다면,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일치는 다른 방식으로 설정된다. 『일리아스』에서 불의 이미지는 전사들의 무훈과 분노 등에 자주 연결된다.<sup>10)</sup>

그러나 이 작품의 아이아스처럼 불과 광기가 중첩되어 묘사되는 경우는 오로지 헥토르밖에 없으며, 이는 위에서 인용한 221-224행의 아이아스의 이미지와 정확히 1:1로 상응한다.<sup>11)</sup>

10) 헥토르를 제외하면 『일리아스』에서 디오메데스(5.1-8), 이도메네우스(13.330), 아가멤논(1.104, 11.155-157), 아킬레우스(18.206-214, 19.15-17, 20.371-372, 490-492, 21.11-14, 22.134) 등 불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전사들은 모두 희랍인들이다.

11) 이 밖에도 헥토르는 『일리아스』에서 불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12.439-441, 15.597-600, 623-624, 717-725, 16.122-123).

여기에는 마치 불덩어리같이 미쳐 날뛰는 자가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막강한 제우스의 자식이라 자처하는 저 헥토르 말입니다! (『일리아스』 13.43-54)

### 3) 독백을 통한 내면의 고백

아이아스, 헥토르, 오뒷세우스 이 세 명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내면의 고백은 독백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아이아스의 ‘기만 연설’(646-692)이 가장 유명하다. 『일리아스』에서 가장 길고 풍성한 독백은 헥토르의 것이다(22.98-130). 혼자 성문 밖에서 아킬레우스를 기다리는 그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후회와 수치심, 또 아킬레우스에 대한 공포와 혹시 자신이 아킬레우스를 이길 지도 모른다는 절망과 희망 사이의 진동 역시 이 독백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리아스』에서는 어떤 다른 인물도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죽음에 직면한 두 영웅의 독백이라는 점에서도 이 둘은 깊은 유사성을 보인다. 한편, 『오뒷세이아』는 오뒷세우스의 크고 작은 독백을 다섯 차례나 들려주며 (5.354-365, 407-423, 464-473, 13.197-216, 20.17-21), 『일리아스』에서도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드러내는 그의 독백은 뛰어난 전사의 마음 가짐을 드러내는 예로 자주 인용된다(11.403-410).

### 4) 여인과 아들의 이름

이 세 영웅 모두 자신의 존재가 아내와 아들의 이름에 투영

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오뒷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의 이름은 어원적으로 *penē*(씨실) + *lepo*(벗겨내다)의 조합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편을 기다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낮에는 피륙을 짜고 밤에는 실을 풀던 그녀의 계략과 그녀의 이름, 그리고 오뒷세우스와의 관계가 설명된다. 아들의 이름 텔레마코스(Tele 멀리 + machos 전사)는 멀리 집을 떠나 투쟁해온 사람으로도, 혹은 활을 다루는 사람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오뒷세우스와 잘 어울린다. 헥토르와 그의 가족 역시 다르지 않다. 시인은 그의 아들의 이름과 의미를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준다.

헥토르는 이 아이를 스카만드리오스라 불렀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스튀아낙스(Asty 도시 +anax 지배자)라고 부르곤 했다, 헥토르 한 사람이 일리오스를 지켜왔기에. (『일리아스』 6.402-403)

아내의 이름 안드로마케(Andro 남자+ mache 전투)에도 전투에 나서는 남자로서의 헥토르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이아스의 여인인 테크멧사와 아들 에우뤼사케스의 이름은 어떨까? 에우뤼사케스(Eury 넓은+ sakes 방패)의 이름과 아이아스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경우이다. ‘넓은 방패’라는 이름이 아이아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방패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방어의 측면에 주목한다면, 아이아스-에우뤼사케스의 관계는 헥토르-아스튀아낙스의 관계와 1:1로 대응한다. 테크멧사(Tecmessa)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그 의미가 드러

나지 않는 경우인데, 본인의 추정대로 이 이름이 tecmaïromai(판단하다, 판정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녀의 이름은 판정, 즉 무구의 판정을 품고 있는 셈이다. 테크멧사와 에우뤼사케스의 이름은 이 드라마 이전의 전통에서는 발견되지 않기에 소포클레스의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이들의 이름이 이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이름들과 아이아스와의 관계가, 오뒷세우스/헥토르의 가족들을 모델로 삼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우연이 된다.

## 5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장면들을 살펴보며 아이아스가 자신의 적들인 헥토르, 오뒷세우스와 동화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설정은 작품 내내 끊임없이 전개된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차례이다. 왜 소포클레스는 이러한 특성을 아이아스에게 부여하며, 이것은 어떤 효과를 주는가?

첫째, 이 드라마의 시작부에서 오뒷세우스는 아이아스를 원수로 바라보지만(78) 동시에 광기에 빠진 그의 운명을 동정하는(121-126) 양가적인 상태에 있고, 아테네의 위력 앞에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인은 드라마의 전개와 함께 아이아스와 오뒷세우스 사이의 지속적인 동일화를 시도하고, 결국 오뒷세우스는 죽은 아이아스의 명예를 위해 아가멤논과의 대립도 불사하며 설전에 나선다(1316-1373). 이미 그는 아이아스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한 일로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1367). 만일 드라마 곳곳에 아이아스와 오뒷세우스의 중첩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면, 오뒷세우스가 극 후반에 아이아스의 명예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설명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아이아스를 구시대적 가치의 대변자로, 오뒷세우스를 새로운 가치의 영웅으로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해석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둘째, 아이아스와 헥토르의 중첩은 극 후반을 잉여가 아닌,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기게 된다. 이 둘은 모두 자신의 시신이 개떼와 새떼의 먹이가 되어 합당한 장례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일리아스』는 22권에서 헥토르가 살해된 후부터 24권 말미에서 헥토르의 장례가 치러지기 전까지 긴장을 잃지 않는다. 소포클레스는 아이아스와 헥토르의 중첩을 통해 『일리아스』 말미의 긴장을 이 드라마의 후반부로 옮겨 온다.<sup>13)</sup> 따라서 후반부의 관객/독자들은 아이아스가 명예를 회복하고 장례를 받게 될지, 아니면 짐승들의 먹이로 방치될지에 주목하게 된다. 아이아스와 헥토르의 공통점이 반복적으로 부각되어 온 것은 아이아스 역시 결국 헥토르처럼 장애를 넘어 장례를 받게 되리라는 암시가 된다. 장례를 방해하는 존재로 아가멤논이 지목되는 것 역시 두 작품 모두 동일하며, 영웅의 유언이 난관 끝에 결국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같다. 결국 헥토

12) 이러한 이분법적인 해석을 보인 연구로는 Brown, 1951, pp. 19~27; Rosenmeyer, 1971, pp. 171~172; Knox, 1979, p. 126, 144; Barlow, 1981, pp. 112~128; Sorum, 1986, pp. 361~377; Golder, 1990, pp. 16, 28~29; Bradshaw, 1991, pp. 115~116; Rosenbloom, 2001, pp. 123~126 이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Garvie 1999, p. 15; Finglass, 2011, pp. 44~45를 보라.

13)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장례에서 보이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Sorum, 1986, p. 376; March, 1991-1993, p. 15를 보라.

르는 죽어서 적에게 연민과 화해를 이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아이아스의 모습과 정확히 겹친다. 이 작품에서 소포클레스가 계승한 것은 『일리아스』의 패턴이고, 따라서 아이아스 역시 헥토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재로 위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빛어진다. 그렇다면, 영웅의 죽음을 전후로 양분되는 이 드라마의 구조는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다루는 기법에서 아이아스와 적들의 중첩은 큰 의미가 있는 실험이 된다. 시인은 아이아스에게 그의 적들의 모습을 거듭 덧입혀가며 역설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결국 이 역설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인물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러한 기법은 후일 『오이디푸스왕』에 이르면 더욱 원숙해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역설을 제 안에 품고 있는 인간의 투쟁을 그리게 될 것이다.<sup>14)</sup> 또, 처음에는 상대의 위력에 눌려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감수하며 행동에 나서는 오뒷세우스라는 캐릭터의 형성은 소포클레스의 말년 작품 중 하나인 『필로크테테스』에서 네오프톨레모스를 통해 선명하게 다시 드러난다. 다만, 거기서는 상대가 오뒷세우스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 논문 투고 일: 2025.06.26

□ 심사 완료 일: 2025.07.28

□ 게재 확정 일: 2025.07.28

14) 현재까지 온전히 전해지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일곱 작품 중에서 상연 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필로크테테스』와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뿐이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따라 『오이디푸스왕』을 중기 작품으로, 『아이아스』를 초기 작품으로 간주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텍스트

Lloyd-Jones, *Hugh and Wilson, N. G.* (1990). *Sophoclis Fabulae*.  
Oxford: Clarendon Press.

Homerus, *Iliad*.

Homerus, *Odyssey*

### 2. 주석

Finglass, P. J. (2011). *Sophocles: Ajax*. Cambridge: Cambridge UP.

Garvie, A. F. (1998). *Sophocles: Ajax*. Warminster: Aris & Phillips.

Stanford, W. B. (1963). *Sophocles: Ajax*. London: Macmillan.

### 3. 2차 문헌

Barker, E. (2004). The Fall-out from Dissent: Hero and Audience in  
*Sophocles' Ajax. Greece & Rome, 51*, 1~20.

Barlow, S. A. (1981). *Sophocles' Ajax and Euripides' Heracles*.  
*Ramus, 10*, 112~128.

Bowie, A. M. (1983). The end of Sophocles' Ajax. *LCM*, 114~115.

Bradshaw, D. J. (1991). The Ajax Myth and the Polis: Old Values and  
New. In D. Pozzi and J. Wickersham (Eds.), *Myth and the Polis*  
(pp. 99~125). Ithaca NY: Cornell UP.

Brown, N. O. (1951). Pindar, Sophocles, and the Thirty Years' Peace.  
*TAPhA, 82*, 1~28.

Brown, W. E. (1965). Sophocles' Ajax and Homer's Hector. *Classical  
Journal, 61*, 118~121.

Burian, Peter. (2012). Polyphonic Ajax In Kirk Ormand (Ed.), *A*

- companion to Sophocles* (pp. 69~83). Chichester: Blackwell.
- Easterling, P. E. (1984). The Tragic Homer. *BICS*, 31, 1~8.
- Evans, J. A. S. (1991). A Reading of Sophocles' Ajax. *QUCC*, 38, 169~185.
- Farmer, M. S. (1998). Sophocles' Ajax and Homer's Hector: Two Soliloquies. *ICS*, 23, 19~45.
- Garner, R. (1990). *From Homer to Tragedy: the Art of Allusion in Greek Poetry*. London/New York: Routledge.
- Gellie, G. H. (1972). *Sophocles: a reading*. Melbourne: the University Press.
- Golder, H. (1990). Sophocles' Ajax: beyond the shadow of time. *Arion*, 1, 9~34.
- Goldhill, S. (1986). *Reading Greek Tragedy*. Cambridge: Cambridge UP.
- Kirkwood, G. M. (1965). Homer and Sophocles' Ajax. In H. D. F. Kitto (Ed.) *Classical Drama and its influence*. London: Methuen. 51~70.
- Knox, B. M. W. (1961). The Ajax of Sophocles. *HSCPh*, 65, 1~37.
- (1979). *Word and action: essays on the ancient theater*. Baltimore/London: Johns Hopkins UP.
- March, J. R. (1991-1993). Sophocles' Ajax: the Death and burial of a hero. *BICS*, 38, 1~36.
- Moore, J. (1977). The Dissembling Speech of Ajax. *YCS*, 25, 48~54.
- O'Higgins, D. (1989). The Second Best of the Achaeans. *Hermathena*, 147, 43~56.
- Rosenbloom, D. (2001). Ajax Is megas: Is That All We Can Say?. Review of A. F. Garvie, *Sophocles' Ajax*. *Prudentia*, 33, 109~130.

- Rosenmeyer, T. G. (1971). *The masks of tragedy: essays on six Greek dramas*. New York: Gordian Press.
- Scodel, R. (1984). *Sophocles*. Boston: Twayne Pub.
- Segal, C. (1999). *Tragedy and Civilization: An Interpretation of Sophocles*. Norman: Univ. of Oklahoma Press.
- Sicherl, M. (1970). Die Tragik des Aias. *Hermes*, 98, 14~37.
- Sorum, C. E. (1986). Sophocles' Ajax in Context. *Classical World*, 79, 361~377.
- Stevens, P. T. (1986). Ajax in the Trugrede. *CQ*, 36, 327~336.
- Taplin, O. (1979). Yielding to forethought: Sophocles' Ajax. In G. Bowerstock, W. Burkert and M. C. Putnam (Eds.) *Arktouros*. Berlin: De Gruyter, 122~129.
- von Mollendorff, Peter. (2001). Die Konstruktion von Helden. Rezeptionslenkung durch Intertextualität im Aias des Sophokles in Konstruktionen von Wirklichkeit. In Ralf von den Hoff, Stefan Schmidt (Eds.) *Bilder im Griechenland des 5. und 4. Jahrhunderts v. Chr.*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261~279.
- Winnington-Ingram, R. P. (1980). *Sophocles: an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P.
- Youman, A. E. (1986). A Perfect Home for Ajax. *Classical World*, 79, 397~400.
- Zanker, G. (1992). Sophocles' Ajax and the Heroic Values of the *Iliad*. *CQ*, 42, 20~25.

## ABSTRACT

### **A Study of Sophocles' Ajax: Homeric approach**

**Lee, Joon-Seok**

Dept. of Culture & Liberal Arts  
KNOU

Since antiquity Sophocles has been known as 'most Homeric'. Ajax is the most Homeric of all surviving Attic plays. From the observations, we cannot fail to notice that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Ajax and his enemies; i.e. Odysseus and Hector.

There are thus some questions to ask about this Homeric play: What is its function in the the plot construction? Why does Sophocles give the seemingly unrelated parallels to Ajax, and what light does it throw on his character as presented by the poet? If there is an intentional coupling here of Ajax and his enemies, what does the poet mean by it? This article may point the way to a coherent resolution of perplexing difficulties by answering those questions. First, the coupling between the hero and his enemies could be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Deception Speech'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scholarship. Second, there has been an oversimplification that the death of Ajax is the end of the old Homeric ethos and Odysseus, by contrast, is well adapted to the civilized society. These binary oppositions can be also overcome by making a close observation of the coupling between Ajax and his enemies. At the same time,

Sophocles maintains the interest of his audience after the suicide of the hero.

| **Key Words** | Homer, Ajax, Odysseus, Hector